

between Art &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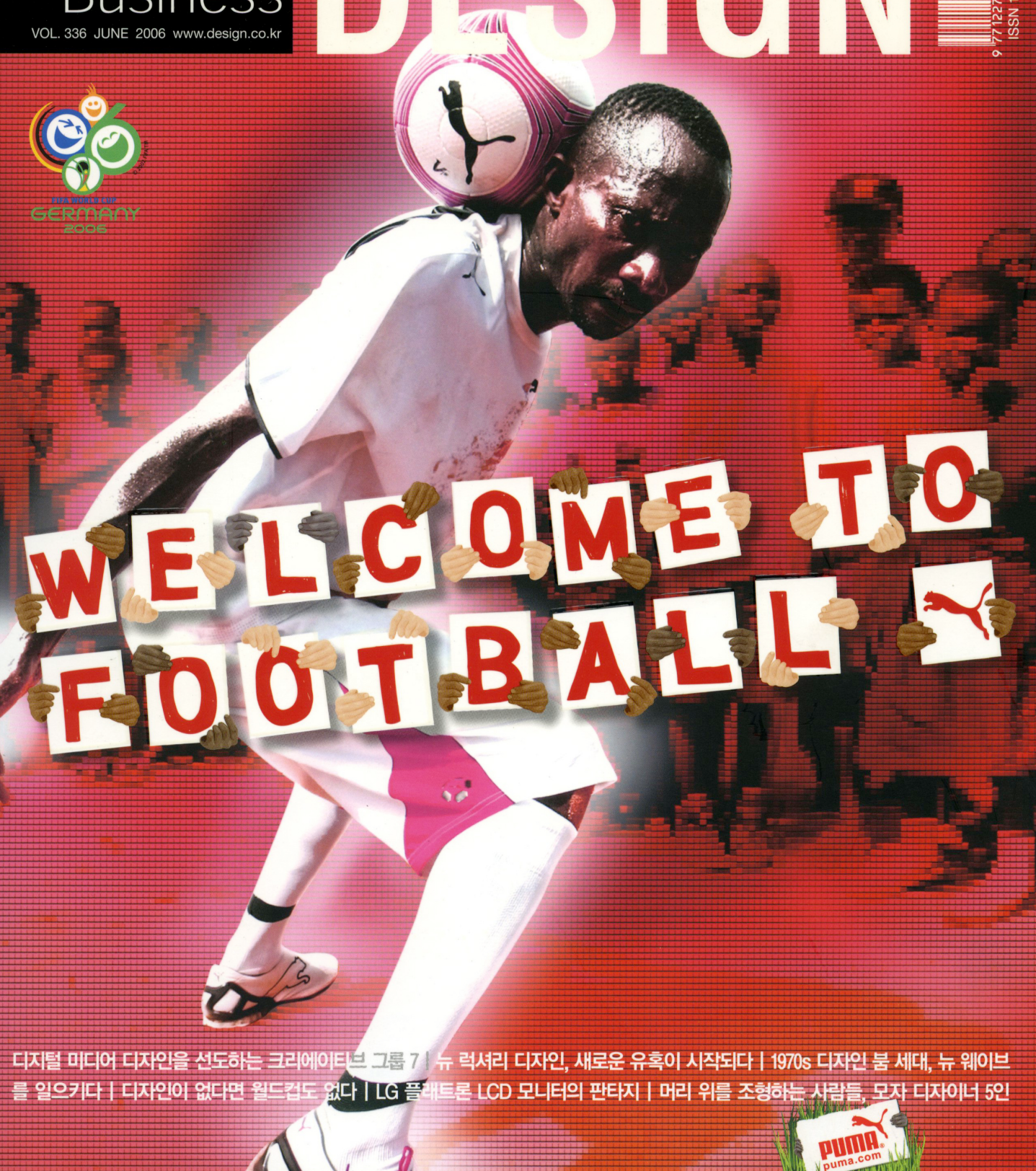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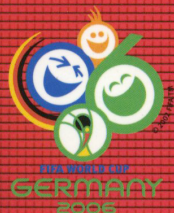
VOL. 336 JUNE 2006 www.design.co.kr

DESIGN

06



9 771227 116003
ISSN 1227-1160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선도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7 | 뉴 럭셔리 디자인, 새로운 유혹이 시작되다 | 1970s 디자인 붐 세대, 뉴 웨이브
를 일으키다 | 디자이너 없다면 월드컵도 없다 | LG 플랫론 LCD 모니터의 판타지 | 머리 위를 조형하는 사람들, 모자 디자이너 5인





대리석으로 만든 테이블로 한쪽 끝을 파내어 수반으로 쓰일 수 있게 했다. 테이블 다리는 화강암과 흑단으로 만들어졌다.

네 번째 파리에 상륙한 최병훈 교수의 한국을 담은 디자인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최병훈 교수의 가구들이 파리 시내 중심에 있는 '갤러리 다운타운(Galerie Downtown)'에서 전시되고 있다. 최병훈 교수가 이 갤러리와 갖는 네 번째 개인전으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다. '갤러리 다운타운'은 파리국립미술학교 옆에 위치한 작지만 막강한 컬렉션을 지닌 갤러리이다. 장 프루베, 론 아라드, 르 코르뷔지에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디자인 대가들의 가구 컬렉션을 재발견하며 컬렉터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곳에서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작가로, 그것도 유일하게 네 번이나 전시를 하게 되었다는 최병훈 교수의 전시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처음 그가 갤러리 다운타운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 1996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한층 더 숙성된 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다시 한 번 갤러리에 초대되었다. 최병훈 교수는 아트페니처란 영역을 개척하며 예술적 오브제로서의 가구를 디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적 선호도와 취향보다는 최병훈 교수가 추구하는 '한국적

미' '뉴 오리엔탈리즘(New Orientalism)'에 대한 탐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은 총 21점. 동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통의 답이 아닌 '시대 정신'이 살아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이었다. 우치다 시게루가 '다실(Tea Room)'이란 작품을 통해 일본 전통문화와 정신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 그는 오늘날 한국 디자인의 답을 '담담함'에서 찾았다. 장식 없는 담담한 형태, 하지만 그 내면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 담담함이 묻어나는 가구가 파리지앵과 컬렉터들에게 색다른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또 동양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갤러리 다운타운은 최병훈 교수의 작품을 선택했던 것이다. **D 에디터/ 김명연, 양우제, 전시장 및 인물사진/ 양우제 프랑스 통신원**

"동양적인 바탕에 조각 같은 느낌, 가구의 기능성까지 그 조화로움이 매력이다"



프랑수아 라파누(Francois Laffanoup)
갤러리 다운타운 관장

갤러리 다운타운에서 10년간 네 번이나 최병훈 교수의 개인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갤러리 다운타운은 현대 예술 작품을 주로 다룬다. 그중에서도 현대 가구를 많이 다루는데 최 교수의 작품은 우리 갤러리 다운타운이 추구하는 현대 예술의 성격을 잘 보여주면서도 가구와 조각의 어울림이 좋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는 형태에서 느껴지는 동양적인 미적 감각이 여타의 다른 가구와는 다르다. 보는 이에게는 조각 같은 작품이지만, 형태만으로 남아 있는 조형물이 아니라 가구로서의 기능성까지 갖고 있어 그것을 절묘하게 절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갤러리 다운타운은 어떤 곳인가?

25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은 프랑스 현대 예술, 디자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축적을 남긴 사람들의 미공개 컬렉션을 발굴해내거나, 그들의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전시로 풀어내고 있다. 갤러리 다운타운의 전시 방향은 대체로 론 아라드, 에토레 소트사스 작품을 선호하며 시장의 흐름에 맞춰 컬렉션을 구성하기도 한다.



흑단을 이용해 만든 스톤 겸용 테이블로 높이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크기: 830X370X800(mm).

대리석과 자연석을 이용해 만든 스톤. 크기: 650X420X450(mm).

단풍나무에 옷질을 해서 완성한 작품



갤러리 다운타운에 전시되고 있는 최병훈 교수 작품들



전시를 찾은 사람들과 대화중인 최병훈 교수